

일상의 도서관, 함께 하는 도서관주간



이해진*

- 어느 공공도서관 10년지기 사서의 작은 소망 -

보자, 올해 도서관주간이 제41회이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서관주간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거의 반세기를 거쳐 온 도서관주간이니 그 묵은 햇수가 꽤나 오래된 행사구나, 새삼스럽다.

10년 동안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면서 여러 부분의 일을 담당했었다. 도서관주간의 행사도 몇 해인가 했고 다른 행사 담당도 했었다. 2003년에 도서관주간 행사를 담당하고 올해 다시 맡았으니 꼭 2년 만에 다시 도서관주간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처음 도서관주간 행사를 할 때는 무심코, 혹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다. 올해 다시 행사를 담당하면서 도서관주간에 대해서 조금은 곱씹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일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서 시작되었는데, 신문기사에서 도서관주간을 '도서관주관'이라 표기한 것을 보고 나서였다. 사실 몇 해전 도서관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도서관주간을 '도서관주관'으로 표기한 기사를 몇 번 보았을 때는 오타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심코 지나갔다. 그런데 다른 사서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도서관주관으로 해온 적이 많았다는 등, 신문기사에서 그런 적이 많다는 등, 심지어는 백 일장의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도서관주관으로 적는다는 등 에피소드가 많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조그마한 에피소드와 새삼스레 그 신문기사의 오타 아닌 오타를 보면서 어! 그럼 시민들도 도서관주간에 대해 별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며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다.

* 김해도서관 사서, badaofkorea@hanmail.net

도서관주간!

시민들에게 도서관주간이 얼마나 인식되어 있을까?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행사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세기동안 행해져온 도서관주간이지만 혹시 계속 담보하고 있는 행사는 아닐까?

생각은 어느 책제목처럼 꼬리에 꼬리 물고 이어졌고, 도서관주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었다.

올해 내가 속해있는 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이어져오던 행사에 몇 개의 새로운 행사를 가미하여 일주일간의 도서관주간 행사를 계획하였다. 행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 일주일 중 휴관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시간은 6일. 그 기간동안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확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도 잠재적인 이용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이 그들의 생활의 일상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매달, 혹은 연중으로 일상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들과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서 기간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주간이 끝나고 일주일후에 맞이하는 세계 책의 날과 같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책의 날 행사는 작은 행사였지만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일주일간의 도서관주간에 대한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침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니 연관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여유있게 도서관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이나 도서관측이나 마찬가지로- 기간을 이주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기간 때문에 도서관주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다. 『도서관 친구되기』, 『도서관의 달』 등등...

또한 도서관주간을 굳이 4월에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 전국의 도서관인이 모이는 『전국도서관대회』가 가을에 실시되고 있다. 그때 도서관주간을 설정하여 같이 연계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이 생각은 『도서관주간 설정 취지문』을 보면서 더욱 굳어졌는데, 사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한 『도서관주간 설정 취지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나도 처음 도서관주간을 만들 당시의 취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취지문만 본다면 - 당시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이는 관련 문건을 더욱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 - 모든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독서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취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국에서는 이 행사가 제7회째(1964년 당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캐나다와 전 미국도서관의 협조하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구도 있다. 추측으로는 한미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도 굳이 도서관주간을 4월에 두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져본다. 더 이상 공동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없다면, 도서관대회가 개최되는 가을로 도서관주간을 옮길 것을 감히 제안해 본다. 도서관주간이 풍성하게 열리고 그 주간에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의식전환의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

봄이 되면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가 차고 넘친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올해 예년에 하던 대로 백일장대회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하는 날 당일 다른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백일장과 일시가 겹쳤고 그 단체에서 주는 상이 훨씬 커서인지 우리 도서관 백일장에 오는 어린이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행사 담당자로서 속을 끓였다. 예정된 행사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였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몇 해나 계속했던 행사인데 전통으로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찾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며 도서관에 애정을 갖게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다. 도서관주간하면 일년 중 가장 도서관이 북적거리고 잔치분위기도 나고 설렘이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그때는 꼭 도서관에 가보고 싶고, 직원들도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처럼 흥겨운 그런 주간을 꿈꾸어본다.

어쩌면 큰 도서관에 근무를 하면서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나 할 수 있는 행사를 지향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서관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기에 그런 꿈 아닌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직종이 사서든지 아니든지간에 몇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특성으로 인한 친절에 대한 인식인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도서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찮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이나 도서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도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직원들은 속앓이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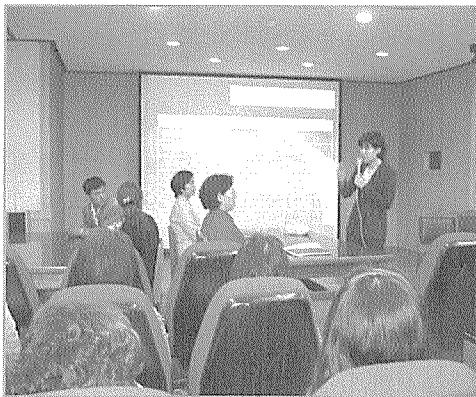
또 한 경우를 보면, 출입문 가까이 앉아있는 남자직원을 지나쳐 굳이 안쪽에 앉아있는 상급 여자직원에게 책을 들고 오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사소할 수도 있는 도서관 풍경을 보며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이나 직원들이 대부분이 여성이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낮추어보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주간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응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료 직원간에, 상하 직급간에, 그리고 시민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도서관의 주된 직원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여 특히 여성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한번의 교육으로 의식이 전환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접함으로써 직원들은 새롭게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또 행사 담당자로서는 이런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조그마한 만족을 가지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지내온 지 10년.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팠으니 이제 웬만큼 울퉁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이다. 이 일 저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세월만 가기 일쑤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된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것은 아닐까? 도서관주간으로 바쁘게 보낸 4월이었지만,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특별함과 일상이 같이 하고 잔치기분으로 들쭉이는 도서관주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뒤라서 그럴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10년지기 사서의 도서관주간은 지나갔다.



〈직원교육〉



〈백일장〉